겸손은 하산이 아니고 낙하다

(빌2:1~11)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겸손은 하산이 아니고 낙하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산은 말 그대로 높은 산에서 낮은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낙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같지만, 하산이 높은 산꼭대기에서 계속해서 땅을 밟고 내려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낙하는 허공을 통해서 낮은 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떨어진다는 뜻의 추락과 다른 것은, 추락은 내가 원치 아니하게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지만, 낙하는 내가 의도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요.
진실 되게 믿어보려는 노력을 한 순간만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는, 세상에 어려운 일이 겸손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겸손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먹고사는 것도 해결되고 행과 불행 모든 것, 자식문제고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걸 깨닫게 돼요, 신앙의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근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말하면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신앙에서 말하는 겸손하기 그 자체가 어려워서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이유는 신앙에서 말하는 겸손하기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해봅니다.
신앙에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는다고 하면 그토록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리가 없어요.
오늘 본문 3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도바울의 겸손의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가하는 의심을 한 번 해본다는 겁니다.

재작년 10월 15일 미국 뉴멕시코 주에 로스웰이라는 지역에서 진기한 기록이 하나 세워집니다.
오스트리아의 스카이다이버로 특수부대 출신인데 2500회 이상 스카이다이빙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려 48000미터 상공에서 음속보다 빠른 낙하속도로 스카이다이빙을 성공합니다.
음속은 초속 340미터니까 계산하면 시속 1110킬로미터 가량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시속 1200킬로미터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1500미터 상공에서 낙하산을 펴고 목표했던 자리로 착지하게 됩니다.
아주 진기한 기록이죠.
근데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스카이다이빙이 일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음속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광속으로 이런 다이빙이 수시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스카이다이빙, 하늘로부터 낙하하는 스카이다이빙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다른데,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비유적으로 말해 하산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낙하입니다, 하늘낙하, 스카이다이빙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은혜를 내가 느끼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가동하게 하는 게 겸손이고, 겸손해야 약속된 모든 은혜가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은혜의 가나안복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어떤 실마리를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사도바울이 촉구하는데, 그 하나가 될 수 있기 위한 실천적인 근거로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겸손이라는 게, 3절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로 규정되고 있는데,

왜 겸손해야만 하느냐 라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걸 본문에서는 권면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남편이 나를 대우 안 해주고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므로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교제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늘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마음에 와서 느껴집니다.
나같이 더럽고 부패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은혜가 다 무엇 때문에 주어질 수 있었나 하면,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하하심으로써 내 것이 될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분의 권면과 위로와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하심과 성령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겸손함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얻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이 나를 대하실 때 겸손하셨던 것처럼 나도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겸손의 내용과 가능성을 예수님의 자기비하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겸손함을 들여다보면 나타난다.
그 내용이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 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띠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종처럼 순종하며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순종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 자기비하가 우리의 겸손의 가능성의 근거고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기비하가 없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비하를 몰라도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언뜻 예수님의 자기비하를 본받으라는 말씀으로 듣지만 본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가능성의 근거가 예수님의 자기비하라고 해놓고, 그 예수님의 자기비하 하시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말을 본받으라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이상하지요?
우리는 본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위 위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일생동안 행한 겸손은 우리가 본받으려고 노력해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대왕이 대왕의 신분으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통 속의 현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가는 것, 겸손입니다.
황희 정승의 겸손함,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겸손함, 아무리 정적이 자기를 비난해도, 링컨이 구두장이의 아들로 배우지 못하고 무식쟁이가 대통령에 출마했다고 욕을 해도 '당신의 구두가 해어질 때면 언제든지 제게 갖고 오시오, 어깨너머로 배운 구두수선의 기술로 당신의 구두를 기꺼이 수선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유머가 넘치는 겸손함, 이런 겸손은 우리가 한 번 해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자기비하는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낙하하신 공간의 이동이 있는 거예요.
낙하를 위한 공간이 거기에 설정이 돼있습니다.
이 공간 확보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 확보가.
이게 확보가 돼야 예수님처럼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겸손이란 게 어떤 거냐 하면, 하산이에요, 하산.
대통령으로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즉 산에 있는 거예요.
산과 땅은 높고 낮은 차이가 있지만 계속 땅의 연장선이잖아요.
그러므로 땅에서 높은 곳에 있으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인기 연예인인데 만나보니 참 겸손하더라, 인기 연예인은 높아진 겁니다.
또, 세계적인 석학이다, 땅에서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석학답지 않게 대학교 1학년 학생들하고 아주 소탈하게 의사소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갖습니다, 겸손한 거예요, 낮아진 거죠?
그런데 이런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볼 때는 산과 평지의 높고 낮음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다 평면으로 보입니다.
박 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더라도 하늘에서 볼 때는 박 근혜 대통령도 죄인이고 박 근혜 대통령이 낮은 자리에서 만난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박 근혜 대통령과 내려와서 만나 그 사람의 차이가 하늘에서 볼 때는 없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대통령인데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않은 것이지.

교만하지 않은 것과 겸손한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이 우리의 겸손의 모델이라면 주님의 겸손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다, 대통령이건 노숙자건 석학이건 무식쟁이 할머니건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바닥에 뒹굴고 있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비하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래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바닥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인간들은 가장 부패한 상태,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가 없어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교만하지 않은 것일 뿐, 낮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기비하처럼 낮아지려면 반드시 하늘과 땅 차이의 공간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되심의 동등 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땅에 내려오신 예수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라는 얘기에요.

왜 연합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대통령을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정직한 거죠.
자기 자신의 모습에 정직한 겁니다.
죄인인 줄 알면서 대학자노릇 하는 것은 정직한 겁니다, 아직 겸손한 건 아니에요.
이들이 사도바울이 말하는 뜻대로 겸손하려면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고 그러면.
함께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떠납니다, 마치 비행기가 땅을 이륙하듯이 이 세상을 이륙하게 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 따라서 완전히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하늘과 땅의 공간의 차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동등 됨을 취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늘에 올라간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천국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몸이 이 땅에 살아있습니다.
이 공간 차에서부터 낙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산이 아니라 낙하가.
대통령이 겸손한 것은 하산입니다, 이건 세상의 겸손이고 세상의 모든 겸손은 하산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이 하산 갖고는 불가능한 이유는, 위에서 보면 대통령이나 아랫사람이나 높낮이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연합할 때 하늘에 올라간 마음과 몸이 사는 이 땅 사이에서의 스카이다이빙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면서 비로소 겸손이 이루어지게 되는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상응을 시켜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여기에 상응하는 것이 뭘까요?
사도바울이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소원이 일어날 수 있어야 겸손이 가능해진다는 얘깁니다.
근데 지금 내 마음의 소원은 전부 이 땅에만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할 수가 없고, 겸손할 수 없으면 주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모든 은혜가 활성화되면서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땅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정직한 것일 뿐이에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겸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으려다가 그나마 못 먹고 굶주리면서 아버지를 떠올리며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은 이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십자가와 연합해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가 겸손한 겁니다, 진짜 낮아진 자에요.
아직도 자존심이 있어서 '암만 그래도 내가 이 꼴로 어떻게 아버지 집을 찾아가느냐?' 이러고 있으면 교만한 것 아닙니까? 돌아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로 우리 마음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많아서 이 세상을 전전하는 것이 탕자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돌아다녔던 것이 죄였음을 알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게 되면 나타나는 일이, 하늘이 너무 좋아요, 성령님께서 그걸 가르쳐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아직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없다면, 아니, 하다못해 이론적으로라도 믿을 수 없다면, 그래서 마음은 못 따라가지만 말로라도 '나는 지금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가장 유익한 거다, 내게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아직은 이게 신앙이 아니고 겸손의 문턱에도 못 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 몸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절대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서 내게 필요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될 주인으로 보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에 촉각을 곤두세운다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그 사람으로부터 빨아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진짜 얻고 싶은 것은 하늘에 다 있기 때문에.
하늘에 내가 원하는 게 다 있습니다.
완벽한 만족, 완벽한 기쁨, 이 모든 게 하늘에 다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만 관계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도바울이 그러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얻으시려고 노력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도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얻으려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 이후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위해 얻으려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에서 교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유무상통이에요, 자기 주머니를 열어놓아 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쓸 수 있도록.
이게 가능합니까?
하늘에 필요한 게 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하산과 같은 겸손이 아니라, 낙하의 겸손이 하산의 겸손보다 쉬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서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낙하로부터 시작해서 낙하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주님이 내게 대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겸손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이미 선취하게 됩니다, 미리 갖게 됩니다.
모든 약속된 은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가 내 것이 되게 됩니다.
참으로 사도바울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은혜를 겸손이라는 단어로 싹 싸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가능성을 예수님의 자기비하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겸손이 가능한 겁니다.
그 말은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축복된 약속을 품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자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역설이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자만이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낮아진다는 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덕목인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자가 아니면 겸손할 수 없다는 이 점.
대단한 거잖아요? 이 사도바울의 통찰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더 이상 높은 곳이 없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보좌 앞으로 올라간 자만이 낙하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어서 예수님의 자기비하가 재현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겸손의 역설성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은혜 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